



혈세 쏟아붓고도 업체 방만 운영 눈감은 道

최근 감사 통해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 전용 사례 확인
도, 예산 출처 확인 등 어려움 들며 “당장 회수 어렵다”
수사의뢰 미루고 업체 대신 해명도… “법리 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감사 결과 버스운송사업자의 부실·방만운영이 드러났지만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예산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회수 조치는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했다.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된 사례가 조사됐다.

특히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월 700만~884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전 업체를 직접 운영하던 분”이라며 “출퇴근 기록은 없지만 (모친이) 일찍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업체 대신 해명했다.

이어 “법인에서 가져갈 이익금에서 뺐다면 법인에서 정당한 재정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며 “(회수하려면) 지급된 돈이 회사의 이익금인지, 제주도 예산 지원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산지침에 따르면 버스대당 표준인원을 정해 인건비를 표준정액으로 지급하는 임원·관리직·정비직의 인건비는 정산검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인건비를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수사 의뢰조차 미루고 있다. 제주도는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은 맞지만 회계체제 조사나 법률 등을 우선 알아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제도 운영, 재정 지원, 노선·운송, 경영·서비스 등 '4개 분야 23개 과제별 후속 조치'에 대한 신뢰성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어 제주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35건 (시정 3·주의 7·개선 1·권고 3·통보 21) 중 6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9개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돼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후보 적격성 놓고 돌로 나뉜 민심… 文 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까지 고심

靑 “모든 게 열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두고 민심이 돌로 갈린 상태에서 임명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송부 마감시한인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마무리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지만 이들이 지난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날 검찰이 부인 정보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진사퇴 없이 임명권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9일 조 후보자가 장관으

로 지명된 이후 한 달 여 동안 국민들은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판정을, 정의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야권은 일제히 부적격 후보로 결론을 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문 대통령의 결정은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와 원로들의 의견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계속 모든 게 열려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재해예방시설 점검 나선 제주시장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지역을 통과한 지난 7일 고회법(오른쪽에서 두번째) 제주시장이 제주지역 내 저류지 등 하천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빨라진 추석, 식중독 더 조심하세요”

지속되는 고온 다습 날씨에도, 명절음식 관리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빨라진 만큼 명절 음식 등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당부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세균 증식으로 식

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발생건수를 보면 가을철 발생건수는 31건·328명(16건·211명)과 겨울철(5건·57명)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도는 추석명절 식중독 예방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식재료는 차례·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

큼만 활용해야 하며, 구입할 때는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입한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채소, 과일류 등 비가열섭취 식품은 가급적 채소·과일용 세척제를 이용해 씻는다.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아야 하고, 미리 조리해 보관해야 하는 차레음식은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한다. 나물, 전 등은 조리 후 차게 식혀 냉장 보관하고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이소진기자

제주시 삼양지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체부 추진 사업 1차 선정
수영장·다목적체육관 포함

제주시 삼양지구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생활센터가 들어선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삼양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생활센터'가 1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9월 말쯤 사업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삼양지구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노인건강실, 옥상시설 산책로, 야외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2017년 삼양동은 8471세대, 약 2만2981명이 거주했는데, 1년 사이 9.5% 증가한 9273세대, 약 2만51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시의 경우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연령의 주민 건강과 문화 예술 활동 등 지역주민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도 협소한 상황이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알림

제주의 속살 거닐며 힐링하세요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0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일상의 쉼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9월 21일 08시 ~ 16시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코스: 비자림로 입구-숲길-이덕구사전-표고밭길-천미천-양하밭-숲길-삼다수숲길-말차오름-숲길-붉은오름휴양림 주차장
▶집결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준비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신청기간: 2019년 9월 9일 ~ 9월 17일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참가비: 1만2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사)
▶문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한라일보

인정받지 못한 부하직원 분담 사용은 권장합니다. (가짜를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부탄캔 폭발사고의 원인은 사용자 취급부주의! 반드시 가스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조리 중에 부탄캔을 화기 가까이 두거나 가열하는 것은 폭발사고의 원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알뜰모임 사용 금지!

행사시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2019년 북촌초등학교 총동문회 한마당축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도 북촌초등학교총동문회 한마당축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모교운동장
■ 주 최 : 북촌초등학교총동문회
■ 후 원 : 북촌리, 노인회, 연합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영농회, 해녀회, 4·3유족회, 학교운영위원회
■ 연락처 : 회 장 이 정 국 010-3696-0989
사무국장 김 미 형 010-6623-0504

북촌초등학교 총동문회

회 장 이 정 국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해발약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해발약 8,000m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5일(일) 08:00
장소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시계포탑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 선착순 40명
·비 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동행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 군산-안덕계곡-월라봉-황개창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1대 산악부 기동
1999년 9월 20일 내팔 해발약 8,000m(8,047m) 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해발약 브로드피크(8,047m) 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해발약 시아판마(8,031m) 등정
2001년 4월 29일 내팔 해발약 로체(8,516m) 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해발약 K2(8,611m) 등정
2002년 5월 4일 내팔 해발약 안나무르나(8,091m) 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최단기공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팔 해발약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해발약 가시브르 1봉(8,035m) 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해발약 가시브르 2봉(8,035m) 등정
2006년 9월 20일 내팔 해발약 마나슬루(8,156m) 등정
2007년 배령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영호장수훈(체육훈장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

제주60+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인지개발교육지도사양성과정

사단법인노영나영복지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인지개발교육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교육명	교육기간	모집인원
인지개발교육지도사 *집중력, 기억력 향상을 돕기 위한 치매 예방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2019. 9월 말	20명

※ 출석 80%이상 수료 후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 모집인원에 따라 교육일정이 조기마감 또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료 후 노인일자리 취업연계 가능

【신청대상】 60세 이상 건강한 분
(50세이상 관심 있는 분에 한 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9. 09. 09. ~ 2019. 09. 23.
【신청장소】 직접방문접수 / 사단법인노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 용담로 128, 2층)
【상담전화】 742-0606

※ 제주60+교육센터는 기업 맞춤형 양성 및 60+의 다양한 사회적
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노영나영복지공동체
에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노영나영복지공동체